

『조신』의 ‘꿈’의 구조를 통한 자기서사적 글쓰기와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조성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조신』 이야기와 ‘꿈’의 구조
- III. ‘꿈’의 구조를 통한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실제
- IV. 문학치료적 접근
- V. 맺음말

【 】

오늘날 다변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욕망의 좌절을 겪는다. 그래서 본 연구는 꿈이 비록 허상이지만 꿈이라는 문학구조 안에서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을 허구적으로 실현해 보고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갖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를 위한 매개체는 『삼국유사』 『조신』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글쓰기에 적용하도록 작품서사를 설명하고 ‘꿈’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독서와 토론>을 수강하는 자들로서 자발적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다양한 욕망을 이야기하였고 유익한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문학적 치료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싶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욕망이 있다. 또한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이것이 동일하든지 별개이든지 간에 결국 삶 속에서의 결여이다. 문학구조를 차용

* 이 연구결과물은 2015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한 자기서사 글쓰기 후 이들의 결여가 해소되는 내면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과정이 문학적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았다.

주제어: 욕망, 꿈, '꿈'의 구조, 작품서사, 자기서사, 문학치료, 성찰, 정체성

I. 머리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정신과 신체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자연히 우리의 일상생활은 ‘힐링(치유)’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그중 상담기법의 하나인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꿈’을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한다. 또한 꿈은 현실의 왜곡이며, 소망충족의 과정이라고 보아 꿈을 통한 치유 이론도 오래전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내면의 탐색을 도와주고, 자기 이해의 증가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강옥¹⁾은 꿈 수행의 원리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문학치료의 효과를 이야기하였다. 꿈 수행이 궁극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꿈 수행의 과정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문학치료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써 『조신』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려고 한다. 남자 주인공인 조신은 자신의 욕망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다. 이는 “자기찾기의 서사”로서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는 자기서사 글쓰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문학 구조에 따라 스토리화하는 자기서사 글쓰기는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양상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1) 이강옥, 『꿈 수행과 문학치료 프로그램』,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신재홍²⁾은 남자주인공 조신이 꿈꾸기를 통하여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바라보았다. 주인공 조신은 자신의 욕망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유환³⁾은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조신』을 논의하였다. 조신이 외면과 내면의 긴장을 통해 자기의 원형을 깨닫고 속세를 벗어나 해탈의 길에 입문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으로서의 인격에 함몰됨을 경계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신』의 작품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탐색하는 서사글쓰기를 한 후 문학치료의 본질인 심리적 변화(치료)를 유도하는 현장에까지 이르는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신의 ‘꿈’의 구조를 차용한 자기서사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고, 문학치료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참여 학생은 경남대학교 2016년 2학기 교양필수 <독서와 토론>이라는 본 연구자의 강좌를 수강한 1학년 30명의 학생들이다.⁴⁾ 본 연구자는 작품서사의 특정 매개체를 통해 자기서사를 허구적으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조신』이라는 작품서사에 충분히 공감하도록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특별로 작품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주었으며, 이 글쓰기를 통해 욕망을 들여다본 유익함을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까지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2)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제 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 강유환, 『자기원형의 발견과 자아실현의 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4)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생명연구윤리센터의 심의 과정을 거쳤음을 밝힌다. IRB에서는 글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 연구자의 수강 학생들이므로 일체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이러한 글쓰기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 후 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II. 「조신」 이야기와 ‘꿈’의 구조

「조신」 이야기는 세속적 욕망을 갖고 있는 한 스님(조신)이 어떻게 훌륭한 수도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며⁵⁾, 주인공 조신이 자신의 현세적 욕망을 꿈을 통해 실현하는 일장춘몽·남가일몽을 그리고 있다고도 한다.⁶⁾ 또한 조신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꿈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논해지기도 하였다.⁷⁾ 뿐만 아니라 조신의 꿈꾸기는 욕망으로 인한 죄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전기소설을 읽는 신라 시대 독자들이 조신의 꿈꾸기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⁸⁾ 따라서 조신이 자신의 욕망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통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꿈’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⁹⁾으로 정의된다. 이는 실제의 꿈뿐

5) 이윤석, 「調信說話의 문학적 가치에 관한 소고」, 『국제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8, p.179.

6) 장덕순(『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p.28)의 설화 분류표에 ‘신앙가치담’의 하위항 ‘4. 꿈’에서 「조신의 꿈」을 ‘一場春夢’으로 유형화 하였다. 송백현(『춘원의 「꿈」에 나타난 전승 모티프의 수용양상』, 『국어국문학』 1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0, p.88)뿐만 아니라 이용남(「조신몽의 소설화 문제 - 「잃어버린 사람들」 · 「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p.197)도 조신설화는 조신의 꿈을 통한 人生無常, 諸行無常, 萬有無常의 구조를 지닌 설화라고 하였다.

7) 남정희, 「『삼국유사』 소재 설화 「조신」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 이평수 소설과 신상옥·배창호의 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7, 국제어문학회, 2013, p.202.

8) 신재홍, 앞의 논문.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을 참고함.

만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상징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실제로 꿈을 꾸면서 문학에서와 같이 현실의 소망을 충족하기도 한다. 또한 현실성을 전제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꿈은 현실과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조신의 꿈의 구조를 통해 자신의 욕망하는 바를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¹⁰⁾

꿈 자체가 신비한 현상이므로 꿈에 등장하는 인물·사건·배경이 제한이 없다는 점 또한 이야기와 닮아 있다. 귀신·도깨비·죽은 조상과 같이 비인적 존재들의 등장은 꿈속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꿈에 등장하는 비인적 존재들을 비롯한 제한 없는 등장인물을 비롯하여 사물과 사건은 꿈속에서만 진실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꿈은 선악의 구별, 거짓과 참의 구별, 올바름과 올바르지 아니함의 구별, 미추의 구별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꿈 이야기만은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무의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꿈은 문학양식에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가 학생들에게 허구적으로 꿈을 꾸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욕망을 제한 없이 표출해 보도록 돕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억눌린 개인의 욕망이나 소망을 꿈을 꾸며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런 심리가 ‘꿈’을 통해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국유사』에 내재된 『조신』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0) 꿈 해몽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태몽과 같은 경우는 일반화되어 주인공의 기이한 출생과 관련하여 서사되고, 문학의 다양한 영역에 등장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꿈이란 말이 자주 사용될 만큼 꿈은 보편적인 감정의 표현이며 본능적이어서 이야기의 세계와 닿아있는 것이다.

(가) 옛날 신라 시대 세달사(世達寺)에 조신(調信)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조신은 그 절의 장원을 관리하기 위해 명주(溟州) 날리군(捺李郡)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그 고을 태수 김 혼(金昕)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남몰래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녀와의 인연을 누차 빌었으나 허사였다. 그녀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다.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다가 슬피 울며 지쳐서 풋잡이 들었다.

(나) 어느날, 김 혼의 딸(김씨랑¹¹⁾)은 조신을 스스로 찾아와 먼저 부부 되기를 간청하였다. 조신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그녀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사십여 년 간 자식 다섯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다) 이후로 곤궁해져 10년간을 구걸하며 떠돌아 다녔다. 열다섯 살 난 큰 아이는 굶어죽었다. 열 살 난 딸아이는 구걸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결국 김씨랑은 조신에게 이별하자고 하였다. 조신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네 아이를 각각 둘씩 나누어 헤어진다.

(라) 조신은 꿈에서 깨어나 고된 삶에 염증을 느꼈다. 그의 탐욕의 마음은 녹았고, 참회했다. 그는 사제를 들어서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행을 쌓았다.

『조신』 이야기에서 조신의 삶의 결여는 그의 실제 삶의 욕망이다. 이 욕망을 요구함으로써 서사는 시작된다. 조신의 욕망은 김씨랑과의 현실적 신분 차이뿐만 아니라 스님이 갖추어야 하는 금욕적 측면에서 불가능함에도 꿈에서는 반영된다.

꿈속에서 김씨랑이 오히려 조신 스님을 그리워하여 부모가 정해진 인연을 버리고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조신의 짝사랑에 지대한 문학적 응대이다. 조신은 김씨랑과 부부연을 맺어 행복하였다. 그들은 아래의 글에서 보듯이 현실의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것처럼 보인다.

11) 조신이 사랑한 여자는 김 혼의 딸이며, ‘시집을 안 간 아가씨’라는 의미로 ‘랑(娘)’을 사용하여 이후로는 ‘김씨랑’으로 호칭한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에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의복이 많고 깨끗하였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당신과 나누어 먹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도 당신과 나누어 입으며 함께 산 지 50년에 둘의 애정은 다시없고 사랑도 얽히어 정녕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¹²⁾

그러나 갑자기 사태의 급변이 일어났다. 가난하여 유랑생활 가운데 열다섯 살 난 큰아이가 죽었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다. 김씨랑의 고백은 인생의 고통(苦)을 이겨낼 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노쇠와 병고는 날로 더욱 깊어가고, 춥고 배고픔은 날로 더욱 꺾박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 곁방살이, 간장 한 병의 구걸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 않았고, 수많은 집 문전에서 그의 수치는 무겁기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있어도 그걸 면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국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기겠소?¹³⁾

위처럼 김씨랑의 고통은 극도에 달해 있다. 오히려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짐이 되고 괴로움의 대상이다.¹⁴⁾ 조신은 김씨랑과의 결연을 수년간 관음보살 앞에서 빌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세계의 횡포 앞에서 김씨랑과 이별해야만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꿈을 깬 조신의 머리털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미 인간의 그 고된 생애에의 염증이 느껴짐이 마치 실제 백 년의 고생을 모조리 겪기라도 한 듯했다”¹⁵⁾고 전한다. 조신은 자녀의 죽음, 가난, 질병과 같은 ‘인생의 고(苦)’뿐만 아니라 사랑했으나 이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苦)’를 겪었

12) 일연 지음/이동환 옮김, 『삼국유사』, 장락, 2000, p.254.

13) 일연 지음/이동환 옮김, 위의 책, p.255.

14) “당신에겐 내가 있어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p.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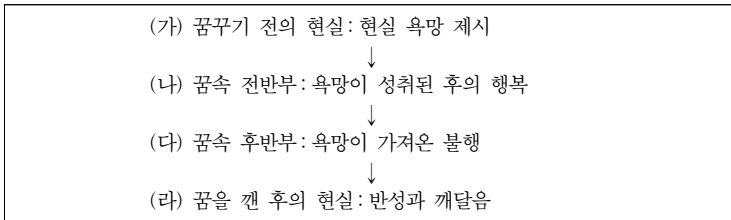
15) 일연 지음/이동환 옮김, 위의 책, p.255.

음을 알 수 있다.

조신은 꿈을 꾸고 나서 괴로운 일생이 한바탕 꿈을 깨달아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각성을 이루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피드백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의 서사는 조신이 온전한 구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된다.

본 논문은 학생들이 이러한 『조신』의 서사에 기대어 자신의 서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이 ‘삶에 관한 이야기’에 역사 또는 허구(드라마 또는 소설)에서 빌려온 서술적 모델 - 플롯 - 을 적용시킬 때 그 이야기는 좀 더 인지 가능하게 된다.¹⁶⁾ 따라서 환몽구조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서사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이 ‘꿈’의 구조는 학생들이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정 기제가 될 것이다.

앞의 『조신』 이야기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서사구조는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 욕망을 조신이라는 주인공처럼 허구적으로 겪도록 도와준다. 이야기의 내용과 구조를 잘 인지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욕망을 글로 수월하게 스토리텔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

16) 폴 리콕트/김동윤, 『서술적 정체성』,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p.52.

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다)에서는 허구적 타자들을 설정하여 허구적 자아와의 상호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한다면 실제 자아에게 나타나는 변화 과정의 제 양상들을 더 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분열적 자아가 등장하도록 함으로써 욕망이 가져오는 위기를 극대화시키도록 유도하였다. 이것은 이야기 속에서 타자가 된 스스로의 감정이나 태도, 인식을 표출하여 합리적 시선으로 자신의 욕망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에서는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가치적으로 고쳐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치 질서에서 다른 가치 질서로 나아가는 것”¹⁷⁾을 보여준다. 이 모든 과정은 입체적 상호관계성 위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시되는 자신의 욕망이 일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결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의할 것은 (가)·(나)·(다)·(라) 과정에서 요약적 제시보다는 극적 제시를 하도록 한다. 또한 3인칭 서술 화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관조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서술된 내용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으로 새롭게 구축된 것이므로 진실성과 논리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경험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서술화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타자화된 자기 자신과의 교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조신』 이야기의 ‘꿈의 구조’에 맞춰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글쓰기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17) 루이스 밍크/윤효녕,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보 기록자』,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p.223.

1. 1인칭 글쓰기가 아니라 3인칭으로 할 것
2. 현재의 힘든 점이나 욕망을 주인공 조신처럼 꿈속에서 허구로 실현하고, 그 욕망 성취가 실패되는 좌절을 또한 꿈속에서 경험한다고 가정하는 글쓰기를 할 것
3. 꿈을 깬 후 조신과 같이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꾸며볼 것
4. 이러한 글쓰기가 자신에게 어떠한 점이 유익했는지를 기술할 것

학생은 먼저 자신의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관한 성찰적 자각을 드러내야 한다. 단순히 기억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의 행위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행위들의 동일한 주체로서 인격 정체성이 생길 수 있다.¹⁸⁾ 따라서 학생들을 교수하는 본 연구자는 충분히 학생들의 사적 영역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가명’으로 글쓴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Ⅲ. ‘꿈’의 구조를 통한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실제

꿈에서는 가상의 경험과 실제의 경험이 종종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는 ‘나비가 된 장자의 꿈’을 잘 알고 있다. 장자가 꿈에 스스로 나비가 된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나비인 자신이 장자로 변한 것을 보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대표적 일화다. 이와 같이 꿈은 그 세계 안에서 경험을 대체할 수 있다.¹⁹⁾ 마찬가지로 문학 속의 꿈이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가상과 실재를 뒤섞은 후 자신의 욕망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성친구 또는 동성친구 간의 소통, 충족한 부유, 젊은 시기의 결혼의 꿈, 탁월한 공부능력과 인정욕구, 부모님과의 원만한 관계, 적절한

18) 박재주, 『서사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 철학과 현실사, 2013, p.51.

19) 양자오·문헌선, 『꿈의 해석을 읽다』, 유유, 2010, p.68.

용돈 관리, 연예인에 대한 부러움,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이야기의 ‘꿈의 구조’를 이용한 자기서사글쓰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글에서는 다양한 욕망과 경험이 드러났다. 다음 몇 편을 예로 제시한다.

먼저 ‘최시우’(가명)라는 학생의 이야기이다.

<꿈 이전> 시우는 왜소하고 소심한 아이다. 가정불화가 심하여 집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매번 혼자 두는 부모님을 싫어했다. 시우는 TV에서 본 아이들을 떠올리며 부러워한다. 늘 밝고 좋은 외모를 가진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네줄에 기대어 잠이 든다.

<꿈 속,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후의 행복>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이었다. 알람이 울렸다. 학교에 가기 위해 씻으려고 한 시우는 거울을 보고 놀란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 훗칠하고 잘 생긴 소년이 있었던 것이다. 놀라서 부모님을 찾았는데 부모님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지각이 겁났던 시우는 우선 등교를 하게 된다.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많은 친구와 인기를 얻은 시우는 자신감 또한 생겨 역시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꿈 속, 욕망이 가져온 불행> 그렇게 인기 많은 생활을 누리고 길거리 캐스팅까지 받은 시우는 점점 과감해지고 오만해지기 시작한다. 예전의 자신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좀 더 우월해지고 잘나 보이기 위해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어느 날 독한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칼질을 한 아이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급격한 변화에 자살을 생각하며 투신자살을 한다.

<꿈 이후, 반성과 깨달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옆에는 걱정스런 표정의 부모님이 계셨다. 그네 옆에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실려 왔다고 한다. 순간 모든 것이 꿈이고 허상인 것을 알게 된 시우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최시우)

‘시우’는 가정불화와 맞벌이 가정에서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길 욕망하며 아이들과 동일화되는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잘생긴 외모에 친구도 많아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오만함이 자리 잡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행동하는 자신의 잘못된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투신자살이라는 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허구화하였다. 그는 꿈을 깬 후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허상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라는 가명을 쓴 학생은 부자가 되는 욕망을 이야기하였다. 충분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글이 다수가 있다. ‘그’라는 학생은 욕망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양상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많은 재산을 불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부의 획득 과정이 비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파산 과정에서도 순식간에 부가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과정이 정직하고 깨끗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꿈 이전> 그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길 바랬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재산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찼다. 어느 날, 자신이 엄청 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후의 행복>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막대한 양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하였다. 그의 재산도 부러워했다. 많은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으로 투자를 하여 어마어마한 재산을 더욱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손쉽게 더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 심지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꿈 속, 욕망이 가져온 불행> 하지만 그는 재산을 불리는 데 급급하여 가족들과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 갔다. 그가 사놓은 주식들은 갑작스럽게 값이 떨어져 가격이 폭락했다. 그리고 그의 재산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불법의 벌금으로

지불되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후회하던 중 잠에서 깨어났다.

<꿈 이후, 반성과 깨달음> 잠에서 깨어난 그는 불법을 저지르고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겠다고 다짐한다.(그)

‘그’(가명)는 “물질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글쓰기가 유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지면 안된다”라는 인식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는 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드럼 연주자가 꿈이었던 ‘노엘’(가명)은 ‘꿈’의 구조를 이용한 자기서사 글쓰기를 통해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하였다. 노엘의 강렬한 소망이 드러난 글은 다음과 같다.

<꿈 이전> 80년대 영국 빈민가의 한 마을에 노엘이라는 소녀가 살았다. 그녀의 꿈은 세계 최고의 밴드의 멤버가 되는 것이었다. 소녀는 드럼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였지만, 경제적 여건과 부모님의 반대로 드럼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드럼을 너무 치고 싶어 소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루 종일 하다 하루는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 속,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후의 행복> 소녀는 동네 밴드의 공연을 매주 보러 다녔다. 우연히 원래 드러머가 개인 사정으로 빠져서 한 번 드럼을 쳐보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매일 연습하여 결국 비어있던 드럼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밴드의 기타 멤버가 재능이 뛰어나 좋은 자작곡들을 많이 만들었다. 공연 도중 유명 프로듀서의 제의를 받고 밴드는 앨범 계약도 하게 된다. 밴드는 데뷔앨범을 내자마자 대박을 터뜨렸고, 2년 만에 스타디움에서도 공연을 하는 거대 밴드가 되었다.

<꿈 속, 욕망이 가져온 불행> 이후 밴드는 차기 앨범의 급속한 퀄리티 저하로 혹평을 받았다. 팬들도 점차 떨어져 갔다. 좋은 신생 밴드가 점점 넘쳐나는 영국에서 노엘의 밴드는 결국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며 밴드를 해체하게

된다. 작사·작곡 능력이 없는 드럼만 잘 치던 노엘은 결국 솔로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음악계를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다.

<꿈 이후, 반성과 깨달음> 노엘은 꿈에서 깨어나 계속된 긍정적인 우연은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꿈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깨달았다. 재능이 없고 여건도 좋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반영하여 노엘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알바도 틈틈이 하여 교내 동아리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취미로 즐겁게 생활했다. 노엘은 굳이 세계 최고의 밴드 멤버가 아니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드럼을 계속 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노엘)

위의 글을 쓴 ‘노엘’(가명)은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고 오히려 스스로 희망을 저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노엘은 어렸을 때 아무 계획 없이 막연하게 밴드를 하고 싶어 했다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에 대해 배우고, 꼭 최고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이균’(가명)은 젊은 나이의 결혼을 욕망했으나, 잘 감당하지 못할 변수가 있음을 발견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찰하고 있다.

<꿈 이전> 제이균은 젊은 날의 결혼을 꿈꿨다. 젊은 시절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일찍 결혼하여 아이와 친구 처럼 지내고 싶었다. 나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의 왕래가 잦고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어느 날, 제이균은 꿈을 꾸었다.

<꿈 속,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후의 행복> 제이균은 남편과 다정하게 살아가며 일찍 아이를 낳아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둔다. 친가와 외가에서 자녀를 돌아가며 돌봐주고 어른들은 제이균의 집에 자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며 화목한 생활을 하였다.

<꿈 속, 욕망이 가져온 불행> 제이균은 원하는 대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어린 부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잦은 다툼을 하였고 자녀를 낳고 난 후 자녀를 케어해 주

는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여 친가와 외가의 도움을 과도하게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했으나, 제이균의 집에 잦은 방문으로 가정에 간섭을 받게 되고 외가와 친가의 자녀 교육에 대한 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제이균 부부는 스트레스와 서로의 가족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부부싸움이 점점 커졌다.

<꿈 이후, 반성과 깨달음> 꿈을 깬 제이균은 젊은 시절의 결혼이 낭만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과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경제력을 키우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가와 외가의 막역한 사이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는 친구 같은 관계도 좋지만 부모로서 책임감 있고 부부 간의 교육방식, 양육방식을 의논함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준비 없는 결혼은 가정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제이균)

‘제이균’은 이러한 ‘꿈’의 구조를 이용한 자기서사 글쓰기가 “자신이 꾸는 꿈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저 막연하게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나이의 결혼이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가 있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용돈 관리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었다.

<꿈 이전>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이 부족하였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었지만 밥값과 차비로도 용돈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여 내 용돈도 따로 챙기고 저금도 하며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야지 하며 뿌듯해하고 있었다. 어느 하루 그녀는 집에서 과제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 속,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후의 행복> 꿈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일을 하고 한 달 후 7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았다. 학교를 다니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한 그녀는 매우 뿌듯해 하였다. 이 7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녀는 저금도 하였다.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다. 자기 자신에게도 보상으로 옷과 화장품 등을 선물하였다.

<꿈 속, 욕망이 가져온 불행> 어느 날, 그녀는 쇼핑을 하다 카드에 돈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아 놀랐다. 그녀는 '70만원이라는 돈은 많으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것이다. 그녀는 통장 잔액을 보니 8900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때 꿈에서 깨어났다.

<꿈 이후, 반성과 깨달음> 그녀는 자기 자신의 미래가 곧 그럴 것 같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꿈으로 인해 월급을 받고 돈을 계획적으로 쓰고 불필요한 것은 되도록 사지 않았으며, 저금을 더 넉넉히 하여 미래에 더 투자를 했다.(그녀)

‘그녀’(가명)는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돈의 계획적 소비에 대해 그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 유익한 계기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상으로 『조신』의 ‘꿈’의 구조를 통해 자기서사 글쓰기를 한 학생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신이 꿈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처럼 학생들은 성숙한 자아로의 조신의 탄생을 통해 존재론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욕망하는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임을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이야기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특정한 순간에 왜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을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구성하는 행위와 경험들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따라서 문학적 서술의 자기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20) 방지하, 『맥킨타이어 ‘서사적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교육철학학회, p.81.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학생들의 욕망이 어떠한 지 간에 자기서사 글쓰기는 치유적 가치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더욱 올바르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아의 확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글에 문학치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IV.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는 “인간 활동 그 자체가 문학이며, 더 나아가 인간 그 자체가 문학”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²¹⁾ 문학치료는 문학을 인간 내면의 변화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학과 인간의 공통된 기반으로 서사를 고안해 냈다. 문학작품의 밑바탕을 이루는 서사를 작품서사, 그리고 인간의 인생살이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서사를 자기서사로 구분하고, 이 두 서사개념의 상호간의 조응을 통해 문학작품을 치료적으로 사용하게 된다.²²⁾

그렇기에 문학치료는 작품서사가 자기서사에 치료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작품서사는 인간의 자기서사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서사를 변화시키고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²³⁾ 또한 독서를 통해 작중인물을 동일시하거나 작중인

21)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p.248.

22)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p.250.

23) 장정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

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서사 글쓰기는 자신의 욕망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한층 승화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기서사의 확보는 한 개인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욕망에 관한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곧 <꿈>의 구조를 통한 자기서사 글쓰기>를 통해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자신의 욕망을 의심한 결과를 재점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탐색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러한 글쓰기가 자신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 ① 다시 한 번 나의 욕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남보다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안젤라)²⁴⁾
- ② 나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 당해 보지 못한 일을 상상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그)
- ③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지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뽀이)

료학회, 2016, p.23.

24) ()에 있는 이름은 가명임을 밝혀둔다.

- ④ 이 글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고 써본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이번 글쓰기는 저에게 정말 유익했습니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한 번 써보면 좋겠습니다.(이우연)
- 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나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욕망이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참신한 활동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새벽)
- ⑥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나의 어려웠던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결점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했습니다.(푸른 하늘 비둘기 한 마리)
- ⑦ 처음 이야기를 만들 때는 몰랐는데 쓰면 쓸수록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점에 흥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저의 상상력이 증가한 것 같고, 이것을 통해 어제의 저보다 성장한 오늘의 저인 것 같습니다.(상남동)
- ⑧ 코파라는 인물을 통해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현재 꿈을 꾸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이런 목적으로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그 목적을 사용하여 꿈을 이루었더라도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미래를 예견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욱 또렷한 동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코카스파니엘)
- ⑨ 마음 속 욕망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주꿀)

- ⑩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었을 때 어떤 불행이 닥칠 것인지 인지하게 되어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또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간혀 있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게 되어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더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호화)
- ⑪ 사실 이 글은 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나의 욕심들을 시도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 무리를 한다며 많이 걱정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들(걱정들)을 떠올리며 감정이입을 하며 글을 썼더니 지금 나 자신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두리몽실한 고민들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방법들을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유아린)
- ⑫ 욕구는 채워도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큰 이상을 좇는 것보다 자신의 주위에 존재하는 작은 이상들을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욕구가 실현되었을 때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J·Y)

학생들의 위의 답변은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 본 감상이다. 꼭 어떤 유의미한 결과적 인식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한 번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는 여유를 부려보도록 하는 데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위에 열거된 예시의 거의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②), 뽀이(③), 새벽(⑤), 푸른 하늘 비둘기 한 마리(⑥), 주꿀(⑨), 유아린(⑩), J·Y(⑫)는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유아린(⑩)은 이러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주며 자신의 욕망의 폐해와 유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J·Y(⑫)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코카스파니엘(⑧)과 같이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기제가 될 것이다. 곧 학생들의 삶에 세계관을 창출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세계관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이상적인 소망에 속하는 일’이며, ‘그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관심을 가장 합목적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즉 세계관은 사람들을 정신적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안전함을 주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해답을 준다는 것이다.²⁵⁾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코카스파니엘(⑧)이 자신의 욕망을 살핌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인식으로 나뉠대로의 삶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욕구는 타자와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인정 부조화에 따른 갈등은 그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다.²⁶⁾ 이런 점에서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이나 과거의 실현되지 못한 인정욕구를 허구적으로나마 글로 표출함으로써 새벽(⑤)과 상남동(⑦)처럼 무의식중에 인정욕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⑤)’, ‘어제의 저보다 성장한 오늘의 저인 것 같다(⑦)’는 스스로의 인정은 자아정체성의 확립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정욕구가 회복된 서사 정체성²⁷⁾은 세계와 맞부딪치는 현실적 문제와

25) 김태형,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세창미디어, 2012, p.16.

26) 악셀 호네프트·이현재,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도 화해를 시도하고 자신의 인정 욕망을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예견할 수 있다. 유아린(㉠)은 “지금 나 자신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자신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계상황의 돌파로 미래를 향해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글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주체가 타자나 타자화된 자아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 현실 등을 말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주체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서사적 정체성은 과정 중에 있게 되며, 비종결적이고, 에피소드가 일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성 된다. 주체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²⁸⁾을 이러한 자기서사적 글쓰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젤라(㉡)와 같이 “남보다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신』 이야기와 같은 성장서사가 성찰을 통한 주인공의 내면적 변화를 형상화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꿈’의 구조는 작중인물의 내면적 변화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푸른 비둘기 한 마리(㉢)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재

27) 한정훈은 ‘서사 정체성’을 ‘현실적 자아가 세계에 편입될 수 있게 서사로 설정된 주체의 모습’이라고 그의 논문 “『구비문학』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p.351)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브리엘레 루치우스 - 회네 · 아르놀프 테퍼만의 『이야기 분석』(역락, 2006, p.80)에서 서사 정체성은 한 사람이 구체적인 상호행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상황에서 중요한 관점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서사 정체성은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창출되고, 그 속에서 표현되는 국지적이고 화용론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28) 선주원, 『청소년의 삶과 성장의 서사, 그리고 서사적 정체성』,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pp.318-319.

미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조신의 새로운 현실인식의 차원에 까지 나아가 동일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창 혈기 왕성한 대학생들은 삶의 열정이 앞설 때가 많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지향할수록 좌절에 따른 욕망 결핍이 심하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읽어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거치지 못하고 이미지에 의해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조신』 이야기의 내용과 ‘꿈’의 구조를 통해 자신의 현실 욕망을 구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나 행위를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말한다는 것,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자신의 말이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이상으로 ‘조신’이라는 인물이 겪는 ‘꿈’의 구조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서사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경험과 욕망을 바깥으로 표출시켜 스스로의 욕망에 대한 인정과 통찰,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기서사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여 현재의 삶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치료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삼국유사』 『조신』의 ‘꿈’의 구조를 이용하여 자기서사 글쓰기를 한 후 문학치료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이었다. 이는 2016년 <독서와

29) 방지하, 앞의 논문, pp.81-82.

토론>이라는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30명)의 자발적 도움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꿈이 비록 허상이지만 꿈의 구조 안에서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이 문학적 구조의 차용의 도움으로 성찰되고 통찰을 이루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신」 이야기에 공명하도록 작품서사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 작품서사가 가지는 ‘꿈’의 구조를 연구자가 이야기한 후 이를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로 사용해 볼 것을 권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돈, 탁월한 학업 능력, 멋진 외모, 재능 있는 연주자, 계획 있는 용돈 관리,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욕망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욕망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배제하고 싶은 욕망과 미래에 이루고 싶은 소망(욕망)으로 대별되었다. 세밀히 따지자면 전자는 결여를 메울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며, 후자는 현재 삶의 돌파를 욕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삶의 결여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꿈의 구조를 통해 서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욕망의 양상과 의미를 헤아리는 통찰적 인식이 드러났다. 학생은 글에서 자신을 타자로 바라보는 객관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그 욕망이 진정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와 그 길이 참된 길인지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인정욕구가 회복되는 예도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문학구조를 차용한 자기서사 글쓰기를 통해 자기이해를 이루었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개진해 보았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레 루치우스 - 회네 · 아르놀프 데피만 / 박용익, 『이야기 분석』, 역락, 2006.
- 강유환, 『자기원형의 발견과 자아실현의 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pp.99-130.
- 김태형,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세창미디어, 2012.
- 남정희, 『『삼국유사』 소재 설화 『조신』 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 이광수 소설과 신상옥 · 배창호의 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7, 국제어문학회, 2013, pp.199-223.
- 루이스 밍크 / 윤효녕,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보 기록자』,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pp.213-214.
- 박재주, 『서사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 철학과 현실사, 2013.
- 방지하, 『맥킨타이어 ‘서사적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교육철학학회, pp.71-99.
- 선주원, 『청소년의 삶과 성장의 서사, 그리고 서사적 정체성』,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pp.313-343.
- 송백현, 『춘원의 『꿈』에 나타난 진승 모티프의 수용양상』, 『국어국문학』 1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0, pp.87-99.
-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제 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pp.301-326.
- 악셀 호네프 / 이현재,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 양자오 · 문현선, 『꿈의 해석을 읽다』, 유유, 2010.
- 이강욱, 『꿈 수행과 문학치료 프로그램』,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pp.47-88.
- 이용남, 『『조신』의 소설화 문제 - 『잃어버린 사람들』 · 『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pp.191-209.
- 이윤석, 『調信說話의 문학적 가치에 관한 소고』, 『국제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8, pp.167-189.
- 일연 지음 / 이동환, 『삼국유사』, 장락, 2000.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 장정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pp.9-37.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pp.247-278.

폴 리콕르 / 김동윤, 「서술적 정체성」,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pp.49-67.

한정훈, 「『구비문학』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pp.347-383.

Abstract

Exploring self-narrative writing and possibility of literary treatment
through the structure of 'dream' of 『Josin』

Cho, Seong-sook

Today, in a diversified society, people have various desires and they try to realize them. However, many people suffer frustration of desire. Therefore, although dreams are illusions, this study puts meaning for one to have an opportunity to fictitiously realize and reflect on the realistic desire that one wants to realize in the dream as a literary structure. The mediator for this is 『Josin』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This study makes students to explain the narrative of the work and grasp the structure of 'dream' to help students adapt to writing. Participating students were volunteers who took <Reading and Discussion> course. Students talked about various desires and described the benefits in detail.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literary treatment through this procedure. Everyone has a desire that they want to exclude or deny in their life. There is also a desire to achieve hope. Whether they are same or not, it is eventually a lack in the life. After writing the self narrative borrowing literature structure, they shows the inner changes that eliminate their lack.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process has possibility of literary treatment.

Key Word : desire, dream, structure of 'dream', self narrative, literary t, reflection, identity

조성숙

소속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jss6615@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2월 9일 투고되어
2017년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